「언어연구」, 제21권(2004), 45～55

# 구개음화 현상의 산포이론 분석

안상철 (경희대)　조성문 (한양대)

**Ahn, Sang-Cheol & Cho, Sung-moon. 2004. A Dispersion Account of the Emergence of the Korean Palatals.** *Linguistic Research* 21, 45-55. This paper provides a new account on the emergence of the palatal consonants and the palatalization processe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we employ the frameworks of Optimality Theory (McCarthy & Prince 1995) and Dispersion Theory (Flemming 1995, 1996). During the discussion, we first argue that we can account for the emergence of the palatal/palatalized consonants by postulating several constraints for maintaining phonemic contrast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constraints. We also show that the promotion and demotion of certain constraints are responsible for the diachronic differences of the consonantal inventories and the palatalization patterns.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dispersion, Korean palatals, palatalization, diachronic perspective, optimality theory, promotion, demotion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통시적으로나 방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구개음화 현상을 산포이론(Dispersion Theory, Flemming 1995)으로 설명하는 것이다.[1] 구개음화 현상은 일찍부터 남부방언과 동북방언에서부터 그 세력을 중부방언으로 확산시켰으나 아직 서북방언과 육진방언에서는 확산되지 않은 음운현상이다.[2] 이 현상은 그 동안 국어의 음운사나 방언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구개음화의 실현 시기와 실현 환경에 대한 정밀한 관찰, 그리고 확산과정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러나 구개음의 출현과 방언적 변이에 대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산포이론을 적용, 구개음의 출현에 의한 음소체계의 변화, 시대별

1 여기에서 다루는 현상은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로 한정한다. ㄴ탈락이나 ㅎ-구개음화는 논의 전개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 곽충구(2001)에 의하면 현대 육진방언의 경우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는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된다.

변천에 따른 구개음화 진행 상황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통시적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중세국어 시기부터 현대국어까지의 변화를 산포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중세국어 당시에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요인과 구개음 출현에 대한 동기를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

구개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ㄷ'의 구개음화를 살펴보면 현대국어에서는 파생접사가 붙을 때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ㄷ-구개음화
같이[가치], 맏이[마지],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해돋이[해도지], 밭이[바치], 끝이[끄치], 걷히다[거치다],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핥이다[할치다]

이 ㄷ-구개음화의 시기에 대해서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에서는 15세기 말엽(이명규 2000) 내지 16세기 말엽에 완성(안병희 1978)되었으며, 경기방언에서는 17세기 중기 내지 말기(안병희 1957)에 일어났다는 견해와 'ㅈ, ㅊ'의 음가가 치찰음 [ts]에서 경구개음 [ʧ]로 바뀐 이후인 18세기(이기문 1972)에 실현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경상방언에서는 16세기 후반에 발생하여 17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며, 이는 어휘부 내부와 어두와 비어두에서 거의 동시에 실현된 현상이다(백두현 1992). 서북방언이나 육진방언에서는 '덩기(電氣), 됴(好)-'와 같이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ㄷ'의 음가가 치경음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역구개음화의 예 '다꾸(자꾸), 덜구(절구), 딸(短)-'가 실현되고 있다. ㄷ-구개음화의 조건은 'ㅈ'이 치경음 [ts]에서 구개음 [ʧ]로 바뀐 이후에 가능한 현상으로 이미 15세기경 이러한 변화(진짓, 월인석보 1-36)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어휘부 내부에서 형태소 경계로 확산된 것으로 동화주 i(y)가 기원적으로 이중모음 'wi, ɔi'나 'e>i'에 의한 2차적 i(y) 모음인 경우에는 이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어듸>어디, 데->디-). 다시 말하자면 /ti/와 /tɔy/의 두 유형에서 통시적으로 /ti/의 경우만 구개음화에 적용되는 형태음소론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

ㄱ-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와는 다르게 일부 방언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환경도 어두에만 제한되어 있다.

(2) ㄱ-구개음화
겨울[저울], 결국[절국], 기둥[지둥], 길[질], 길다[질다], 김장[짐장], 김치[짐치], 깊다[집다], 견디다[전디다], 겨드랑이[저드랑이], 끼다[지다], 키[치]

이 ㄱ-구개음화 현상은 경상, 전라방언과 함북방언에서 폭넓게 퍼져 있으나 경기, 황해, 평안방언에까지 확산되지 못한 음운 현상이며, 그 실현 조건도 어두음절에 한정되어 실현된다. 그러나 합성어 환경에서는 단어경계를 뛰어넘어서는 비어두음절에서(등겨[waŋ+ʧə], 왕겨[tiŋ+ʧə])에서도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 18세기경에 경상방언이 반영된 ㄱ-구개음화의 예가 <중간두시언해>에서 '져으레(7-28)'가 처음으로 발견된다. 경상방언에서 ㄱ-구개음화는 동화주가 'yə'인 경우는 동화주 'i'의 환경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실현되지만 'yo, yu'인 경우에는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표준어의 ㄷ-구개음화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다른 유형의 구개음화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3. 최적성 이론과 산포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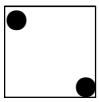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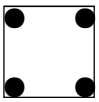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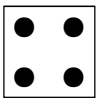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McCarthy & Prince 1995)은 제약과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기초로하는 언어 분석 모델이다. 반면 표준 생성이론은 규칙과 도출의 모델이다. 그러나 최적성 이론에서는 모든 가능한 후보 출력형이 허락되며 그것을 관련된 제약의 집합으로 평가한다. 최적성 이론의 주요한 분석적 제안은 제약들이 관련된 위계로 정의된다. 그리고 하위등급의 제약들은 상위 등급의 제약들은 위반되지 않지만 하위에 위치에 속한 제약은 경우에 따라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한편, Flemming(1995)에 기초하고 있는 '산포이론(Dispersion Theory)'은 Lindblom(1986)에 의해 제안된 음성학적 음운분석 방법을 최적성이론(에 접목시킨 이론이다 산포이론에서는 음운적 대조의 적형성(well-formedness)에 관한 제약들이 제시된다. 특히, 음운체계와 관련되어 다음의 세 가지 기능적인 목표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Flemming 1996).

(3) a. 대조의 정도를 최대화하라.
b.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라.
c. 조음적 노력을 최소화하라.

이 원칙들을 최적성 이론에 통합되는 과정은 다음 (4)에서 제시된 것처럼 위

의 세 가지 기능적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Flemming 1996).

(4) a  b  c 

먼저, (4a)는 오직 한 가지 대조만을 포함하는 음소목록을 보여주지만 두 음소가 청각적 영역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조의 정도는 최대화 되어있다. (4b)는 동일한 청각 영역에 좀더 많은 음소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각 음소가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 따라서 대조의 정도를 최대화하는 목표와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목표가 충돌한다. 더욱이 조음의 편이성을 위한 세 번째 제약도 또한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제약과 충돌한다. 청각적 영역에서 주변에 있는 음소는 덜 주변적인 음소 보다 더 많은 조음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4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축소된 영역으로 음소의 분포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산포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조의 정도와 수에 대한 제약이 상호 충돌한다는 것과 최종 음소목록이 이러한 제약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Flemming 1996)이므로 최적성 이론의 틀에 통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적성 이론에서의 음운적 대조의 적형성에 관한 제약을 도입하고 역사적인 자음의 교체가 음성적 자연성과 대조의 명료화/최대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한다. 즉, 자음 변이의 결과로 나타난 최종적인 출력형은 음성적 자연성을 가진 제약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전반적인 자음체계의 적형성은 개별모음의 이동현상 만으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한 자음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패턴평가(pattern evaluation)'에 의해 해석되어야 함을 보인다.

이상에서 소개된 산포이론의 개념을 구개음화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Flemming (1995)이 제시한 음소 사이의 적절한 대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조(contrast)'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3] 그 이유는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의 공간이 균형적이지 않지만 필요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ntrast의 개념을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에 적용하면 (5)와 같은 등급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등급은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원칙을 대조의 숫자에 따라서 몇 가지 제약으로 설정한 것으로 Flemming (1995)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즉, 아래의 제약위계에 제시된 Contrast≥1, Contrast≥2,

[3] Ní Chiosáin & Padgett(2001)과 Padgett(2003)이 제시했던 Spacing의 개념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는 Spacing의 개념보다는 Flemming(1995)에서 제시되었던 Contrast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Contrast≥3… 등의 제약은 음소간 대조의 수가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등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다.

(5) Contrast≥1 》 Contrast≥2 》 Contrast≥3 》 Contrast≥ 4 》…
》 Contrast≥n

이 제약 등급은 보편적이면서도 대조의 수를 최대화라는 요구를 반영하는데, 이제 이 Contrast 제약 등급이 구개음화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자음이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 중 하나가 되고, 모음(V)이 전설고모음(i)인 Ci 형태의 단어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t와 k에 1, 2라는 숫자를 부여해서 $t_1$, $k_2$ 표시한 것은 그것이 변해서 구개음 č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한편, $č_{1,2}$i는 $t_1$과 $k_2$가 동일한 구개음으로 변화된 것을 나타낸다.

(6) Contrast 제약의 구개음화에 대한 평가

| | pi $t_1$i či $k_2$i | Contrast≥1 | Contrast≥2 | Contrast≥3 | Contrast≥4 |
|---|---|---|---|---|---|
| a. | pi $t_1$i či $k_2$i | | | | * |
| b. | pi $t_1$i $k_2$i | | | * | |
| c. | pi $č_1$i $k_2$i | | | * | |
| d. | pi $t_1$i $č_2$i | | | * | |
| e. | pi $č_{1,2}$i | | * | | |

(6a)는 Contrast≥4 제약을 위반하지만, [pi], [ti], [či], [ki] 모두 대조를 보인다. 이 (6a)는 역사적으로 구개음화의 변모 양상을 봤을 때 구개음이 등장하고 구개음화는 발생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인 근대국어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6b)는 Contrast≥3을 위반하는데, [pi], [ti], [ki]가 대조를 보인다. 이 (6b)는 구개음이 나오기 이전인 근대국어 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개음이 없고, 순음, 치경음, 연구개음만의 대립이 존재한다. (6c)도 Contrast≥3을 위반하는데, [pi], [či], [ki]의 대조를 보인다. 이 (6c)는 현대국어의 표준어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ㄷ-구개음화는 있지만, ㄱ-구개음화는 없기 때문이다. (6d)도 Contrast≥3을 위반하는데, [pi], [ti], [či]의 대조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는 육진방언에서 보이고 있다(곽충구 2001). 아직 진행 중이지만 ㄷ-구개음화보다 ㄱ-구개음화가 더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조도 국어에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 (6e)는 Contrast≥2를 위반하

는데, [pi], [či]의 대조만을 보인다. 이 (6e)는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가 모두 발생하는 일부 방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적용에 앞서 Contrast 제약과 대조를 이루는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구개음화와 관련된 위치 자질의 변화를 제한하는 충실성 제약으로 다음의 (7)과 같다. 그리고 구개음의 출현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분절음의 삽입과 삭제를 금지하는 제약이다 (McCarthy & Prince 1995).

(7) Ident[place]: 입력형 [αplace]를 가진 분절음은 출력형 역시 [αplace]이어야 한다.
(8) Dep: 출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입력형에 대응소가 있어야 한다.
(9) Max: 입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구개음화는 [coron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i, y} 모음을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는 유표성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약은 파생환경에서만 구개음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태소 경계를 제약에 표기한다.

(10) CorPal+i: [coronal]을 가진 자음이 접미사 {i, y}를 만나면 구개음화가 나타난다.[4]

## 4. 제약위계에 의한 시대별 해석

### 4.1 중세국어: 두개의 치경음

위에서 제시된 제약을 가지고 이제 국어의 변천과정에 따라 시대와 방언별로 통합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국어 시기까지는 구개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구개음화 현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음들이 전설고모음을 만나도 구개음화 현상은 발생할 수 없었다. 즉, 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당시에는 'ㅈ'의 구개음이 없었지만, 'ㅈ'이 치경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치경음에는 파열음/파찰음 속성을 가진 /t/와 /c/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입력형에 구개음은 없고 치경음만 두 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치경음은 모두 [-continuent]를 가진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자음

4 러시아어를 위한 유사한 제약이 Rubach(2000a, b, 200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c/가 밀려서 구개음으로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Ní Chiosáin & Padgett (2001)과 Padgett(2003)이 제시했던 Spacing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하나의 공간에서 같은 자질을 가진 두 자음의 있다는 것은 공간의 명확성을 저하시키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한 조음위치에 [-continuent] 자질을 공유하는 두 자음의 출현을 금지하는 유표성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11) 1place=1[-cont]: 하나의 조음위치에 [-continuent] 자질을 갖는 두 자음이 같이 올 수 없다.

물론 이 제약은 구개음이 출현하고 구개음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에서는 (12)에서와 같이 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 중세국어 시기의 제약 등급과 그 실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기능이 없는 Max 제약은 표시하지 않는다.

(12) 중세국어: 구개음 부재

| | pi $t_1$i $c_2$i $k_3$i | Dep | Contrast≥2 | Contrast≥3 | Contrast≥4 | Ident | CorPal | *1place=1[-cont] |
|---|---|---|---|---|---|---|---|---|
| a. | pi $t_1$i $c_2$i či $k_3$i | *! | | | | | ** | * |
| ☞b. | pi $t_1$i $c_2$i $k_3$i | | | | * | | ** | * |
| c. | pi $c_2$i $č_1$i $k_3$i | | | | * | *! | * | |
| d. | pi $t_1$i $č_2$i $k_3$i | | | | * | *! | * | |
| e. | pi $č_{1,2}$i $k_3$i | | | *! | | ** | | |
| f. | pi $č_{1,2,3}$i | | *! | | | *** | | |

### 4.2 근대국어: 구개음/구개음화 출현

이 근대국어의 시기에 오면 중세국어까지 보이지 않던 구개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구개음이 새롭게 음소로 등장해서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근대국어의 초기에는 아직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의 대립이 모두 존재하게 된다. 치경음의 두 자음 /t, c/도 아직까지 존재했다. 다만 입력형에 구개음 'ㅈ'/č/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12)의 경우와 제약 등급에 변화는 없고 구개음이 음소로 존재하였으므로 출력형의 음소가 한 개 증가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새로운 음소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Dep 제약을 하위로 이동시킨다. 한편, 형태소 내부의

새로운 음소출현과는 별도로, 근대국어에서 파생어 형성시 '치경음→구개음'의 구개음화 현상도 같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기술하기 위한 제약, 즉, [coron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i,y]로 시작하는 파생형태소 앞에서 구개음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CorPal 제약이 상위에 도입된다.

이를 제약도표로 나타내기 위하여 우선, 구개음/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약의 위계가 변화된 두 개의 제약은 굵게 표시한다.)

(13) 근대국어: 구개음 출현

| pi $t_1$i $c_2$i ki | **Cor Pal** | Contrast≥2 | Contrast≥3 | Contrast≥4 | Ident | 1place= 1[-cont] | **Dep** |
|---|---|---|---|---|---|---|---|
| ☞a. pi $t_1$i $c_2$i $č_3$i ki | | | | | | * | * |
| b. pi $t_1$i $c_2$i ki | | | | *! | | * | |
| c. pi $c_2$i $č_{1,2}$i ki | | | | *! | * | | * |
| d. pi $t_1$i $č_{2,3}$i ki | | | | *! | * | | * |
| e. pi $č_{1,2,3}$i ki | | | *! | | ** | | * |

우선, 새로 첨가되는 음소가 없으므로 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Dep 제약은 더 이상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파생어 형성과정이 개입되지 않은 형태소 내부의 자음체계 변화이므로 CorPal 제약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파생어 형성시 '치경음→구개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의 도표에서는 파생형태소 앞에서 구개음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상위에 도입된 CorPal 제약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14) 근대국어: 구개음화

| p+i $t_1$+i $c_2$+i k+i | **Cor Pal** | Contrast≥2 | Contrast≥3 | Contrast≥4 | Ident | 1place= 1[-cont] | **Dep** |
|---|---|---|---|---|---|---|---|
| a. pi $t_1$i $c_2$i $č_3$i ki | **! | | | | | * | * |
| b. pi $t_1$i $c_2$i ki | **! | | | *! | | * | |
| c. pi $c_2$i $č_{1,3}$i ki | *! | | | *! | * | | * |
| d. pi $t_1$i $č_{2,3}$i ki | *! | | | *! | * | | * |
| ☞e. pi $č_{1,2,3}$i ki | | | *! | | ** | | * |

### 4.3 현대국어: 구개음화

근대국어 후반 이후에 구개음화 현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서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어간이 파생접사를 만나는 경우에만 구개음화가 발생하

여서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치경 파찰음 'ㅈ'이 음소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동일 조음위치에서 [-cont] 자음 음소가 두 개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 1place=1[-cont] 제약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i, y/ 파생형태소 앞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 CorPal 제약 역시 상위에 남게 된다. 그 제약 등급과 실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구개음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의 네 자음이 모두 실현되어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다.

(15) 현대국어: 구개음화

| | p+i | $t_1$+i | $c_2$+i | $č_3$+i | k+i | 1place=1[-cont] | CorPal | Contrast≥2 | Contrast≥3 | Contrast≥4 | Ident | Dep |
|---|---|---|---|---|---|---|---|---|---|---|---|---|
| a. | pi | $t_1$i | $c_2$i | $č_3$i | ki | *! | **! | | | | | |
| b. | pi | $t_1$i | $c_2$i | | ki | *! | **! | | | *! | | |
| c. | pi | | $c_2$i | $č_{1,3}$i | ki | | *! | | | *! | * | |
| d. | pi | $t_1$i | $č_{2,3}$i | | ki | | *! | | | *! | * | |
| ☞ e. | pi | | $č_{1,2,3}$i | | ki | | | | *! | | ** | |

##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시대와 방언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제약-기반 이론인 최적성 이론과 인지적/음성적 정보를 음운 분석에 이용하는 산포이론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 결과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은 대조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 공간의 명료성을 증대시키는 원칙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시대적인 구개음의 출현과 구개음화의 발생은 시대별 제약의 이동과 음소 간의 대조성의 정도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대별 제약의 이동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중세국어: Dep 제약 상위에 위치, CorPal, 1place=1[cont] 제약이 하위에 위치
근대국어: CorPal 상위로 이동, Dep 하위로 이동
현대국어: 1place=1[-cont] 상위로 이동

이와 같은 제약위계에 의한 분석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ㄱ-구개음화의 경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음성학적인 대조를 통한 분석은 앞으로 구개음화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음운 현상에도 타당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곽충구. 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호. 237-268. 진단학회.

백두현. 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안병희. 1957. 중간두시언해에 나타난 t-구개음화에 대하여, <일석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안병희. 1978. <십오세기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안상철. 2003.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개정 증보판). 한국문화사.

이기문. 1972. <중세국어음운사>. 탑출판사.

이명규. 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한국문화사.

Ahn, Sang-Cheol. 2002. A dispersion account on Middle Korean Vowel shifts. *Japanese/ Korean Linguistics* 10, 237-250.

Ahn, Sang-Cheol. 2004. *Korean Phonology*. Ms. Kyung Hee University.

Beckman, Jill. 1997. *Positional Faithful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Flemming, Edward. 1995. Auditory Representations in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CLA.

Flemming, Edward. 1996. Evidence for constraints on contrast: the dispersion theory of contrast. *UCLA Working Papers in Phonology* 1, 86-106.

Flemming, Edward. 2001a. Scalar and categorical phenomena in a unified model of phonetics and phonology. *Phonology* 18.1, 7-44.

Flemming, Edward. 2001b. Contrast and perceptual distinctiveness. To appear in B. Hayes, R. Kirchner, and D. Steriade (eds.) *The Phonetic Bases of Marked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dblom, Björn. 1986. Phonetic universals in vowel systems. In J. Ohala and J. Jeager (Eds.) *Experimental Phonology*. Orlando: Academic Press.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249-384.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7. Faithfulness and identity in prosodic morphology. Ms. ROA-216.

Ní Chiosáin, Máire and Jaye Padgett. 2001. Markedness, segment realization, and locality in spreading. In Linda Lombardi (ed.) *Segmental Phonology in Optimality Theory*: *Constraints and Representations*. pp. 118-15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dgett, Jaye. 2003. The emergence of contrastive palatalization in Russian. In D. Eric Holt (ed.) *Optimality Theory and Language Change*. pp. 307-335. Dort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Rubach, Jerzy. 2000a. Backness switch in Russian. *Phonology* 17, 39-64.

Rubach, Jerzy. 2000b. Glide and glottal stop insertion in Slavic languages: A DOT analysis. *Linguistic Inquiry* 31, 271-317.

Rubach, Jerzy. 2003. Polish palatalization in 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Lingua* 113, 197-237.

Zoll, Cheryl. 1998. Positional asymmetries and licensing. Ms. MIT.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130-701
E-mail: scahn@khu.ac.kr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33-791
E-mail: mooni67@hanyang.ac.kr
전화: 02-2290-0738

접수일자: 2004. 10. 12
게재일자: 2004. 12. 15